



#### 한국의 미술 다시 읽는다

현역 미학·미술사학자 10인이 회고한 근대기 100년 미학자 12명의 미론. 인드레 에케르트, 고유섭, 야나기 무네오시, 김용준, 조오한 등 12명의 학자들과 그들의 미론을 만나게 된다. 한국미의 원형과 민족 고유의미론을 찾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작업의 토대를 마련한 책. 권영필 등 지음 / 돌베개 발행



#### 미술전시장 가는 날

한국미술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인사동, 사간동, 광화문에 위치한 전 시장을 둘러보고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전시와 단상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 자자의 숨결이 느껴지는 에세이와 심도 깊은 미술비평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박영택 지음 / 마음산책 발행



#### 불손하고 건방지게 미술읽기

흔히 자주 다루는 미술 주제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존 미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관점에서 반기를 드는 책. 비난과 두려움을 넘어 비전 문가인 일반인들이 예술을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대중과 예술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작은 출발이자 시도를 펼치고 있다. 윤영남 지음 / 사공아트 발행



#### 건축사의 대사전들 - 피라마드에서 에펠탑까지

건축 현장의 무대 뒤편으로 시선을 돌려 명예와 권력, 열정과 갈채, 시기와 질투, 영광과 좌절로 점철된 건축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기념비적 건축물에 반드시 등장하는 자국적인 사건, 독특한 인물 이야기와 건축 기술에서의 구경거리, 놀라움과 시련의 순간들이 펼쳐진다. 우르술라 무셀러 지음 / 김수는 옮김 / 열대림 발행



#### 셰익스피어 극의 공연 세계 -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

셰익스피어의 로마극 중에서 현대에도 가장 적절하고 시의에 맞는 연극이다. 부패해 가는 한 제국과 너무 경직되고 유악한 나머지 외해의 길에 들어선 한 체제를 깊이 살펴보고 있다. 앨런 테슨 지음 / 최경란 옮김 / 도서출판 화산문화



#### 필름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영문학뿐 아니라 인문학을 통틀어 동시대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가로 손꼽힐 것이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연극연출가 이윤택, 영화평론가 김지미 등 13인을 통해 셰익스피어 읽는다. 진중권 등 지음 / 씨네21 발행



#### 개를 기르다

이 책에는 네 편의 옴니버스 단편과 한 편의 독립적인 단편이 실려 있다. 작가는 각각의 작품에 동물을 모티브로 하여 죽음, 탄생, 가족, 관계, 성찰이라는 화두를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다. 다니구치 지로 만화 / 박숙경 옮김 / 청년사 발행



#### 마음까지 담은 선물포장

우아하고 세련된, 귀엽고 발랄한 선물 포장 노하우를 친절히 알려주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선물 포장 교과서. 쓰임새에 맞는 상자 포장 방법, 형태가 불규칙해 모양을 잡기 어려운 선물 포장 방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영주 지음 / 도서출판 부키 발행



#### 이 곡만 듣고 나면 살맛이 난다

지은이가 약 7년 동안 인터넷 하이텔과 클래식 포털사이트 '고클래식'에 나누어 연재된 글 중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클래식 음악을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이, 같이 웃고 왕궁어 생활 속 음악으로 만들 어낸 66편의 글이 담겨 있다. 정태상 지음 / 서울미디어 발행



#### 펠릭스와 푸른용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친구의 소중함은 점점 잃어가는 기는 요즘, 친구의 소중함과 서로 나누어 가는 기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다. 안젤라 맥올리스터 글 / 메리 클레이 스미스 그림 / 최미경 옮김 / 책그릇 발행



#### 작디작은 임금님

청소년과 어른들이 같이 읽을 수 있는 동화. 변함 없는 일상을 살아가며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인생과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악셀 하케 지음 / 미하엘 조바 그림 / 미다스북스 발행



#### 30분에 읽는 예술가 시리즈 23~26

모더니즘과 표현주의의 중심에 자리한 20세기 문화의 주춧돌 프란츠 카프카, 예술의 엄격주의를 비웃고 풍자와 유머로 대치한 최고의 끝아티스트 앤디 워홀, 20세기 마지막 모더니스트이자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대중이 전위극을 이해하도록 쓴 최초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로 시대를 앞서간 여성 문학의 대모 버지니아 울프, 랜덤하우스중앙 발행

※이 지면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시는 자료로 꾸며집니다.



## 매혹적인 장정일 희곡집

이 책은 장정일이 쓴 유일한 희곡집이다. 불쑥 출간된 후 세상과 결별한 이 희곡집은 책의 최종 거주지인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다. 이 책을 다시 꺼내 손에 들고 읽었다. 사라진 희곡집을 다시 읽는 일은 참으로 부조리하다. 죽은 희곡집, 그러나 이 책은 한 때 우리들을 습격해서 '정상이 아닌' 「실내극」에서 사회적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4편의 단편희곡을 담은 이 희곡집은 아직도 계속해서 유효하고 매혹적이다. 그의 희곡에는 권태가 없다. 「실내극」은 짧은 단막이다. 아들과 어머니가 차례로 감옥에 다녀오고, 그 사이 아들의 여자는 도망가는 등 이런 일들이 순환 반복된다. 그 결과, 감옥에 갇히는 일은 이들에게 "구속이 아니라 해방"이 된다. "영망진창인" 감옥 바깥에서 아들은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느낄" 뿐만 아니라 "누가 자꾸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불안하다. 이 희곡을 다시 읽어보면서 나는 아들이 말하는 "앞으로 지어야 할 죄가 두려워요", "우리 삶이 톱질 당하는 소리", "저것은 세월가는 소리", "시간은 지금쯤 시냇물을 따라 어둠 속을 떠다니고 있을걸요"와 같은 대사에 주목했다. 「실내극」은 감옥에 가는 일을 반복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자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감옥을 낙원으로 여기는 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대한 격렬하고도 극단적인 고통이다. 이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들이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거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낯설고도 낯선 기쁨이다. 장정일은 그런 기쁨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결별하는 경탄으로 말한다. 「실내극」에 등장하는 공간은 소파가 있는 가정집 거실이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총 쏘는 경찰은 모두 인형과 같은 존재들이다. 인물들은 자신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헛된 꿈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너무 일찍 늙어버린 인물들 뒤에는 질서가 있어 보이지만 그 앞에는 지나친 사회적 삶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어머니」는 「실내극」의 연장선에 놓이는 희곡이다. 장소는 감옥. 죄수인 '흰얼굴'은 '한 다발 물망초'를 훔치고 들어온 인물이다. 그는 자리면서 '썰레꽃, 제비꽃, 분꽃, 접시꽃, 감자꽃, 봉숭아꽃, 채송화, 백일홍, 모란, 해당화, 진달래, 해바라기, 들국화, 나생이꽃, 작약, 백합, 연꽃, 장미, 복숭아꽃, 금잔화, 매화, 맨드라미, 나팔꽃, 동백꽃'으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든다". 이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감옥에서 어머니는 수많은 꽃으로 번역된다. 장정일에게 있어서 세상은 지옥이고, 그 너머 감옥은 꽃밭과도 같다. 그들은 감옥을 낯설게 여기는

외부인이 아니라 감옥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이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곳과 같다. 나는 이 희곡에서 기억이 없는 타향살이를 하는 인물들을 본다. 참으로 슬픈 희곡이다. 「긴 여행」에는 "정말 한 번도 깊은 잠에 들 어본 적이 없고", "잠들려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을 때마다 누가 아주 먼 곳에서 부른다"고 말하는 불면에 걸린 한 인물이 등장한다. 불면은 혼란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뜯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불면의 눈으로 "추억은 천재야. 추억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천재야. 추억은 울보야. 우리는 옛 추억을 항상 울며 기억해야 하지"라고 말한다. 그리고도 "근원은 어디 있나? 끝은? 바닥은? 거의 비슷한 삶, 끝없이 반복되는 삶, 그러나 그 모든 무수한 삶은 거의 같지! 몇 천 년 동안, 몇 천 번을 되풀이 한 삶, 하나의 통과 의례에 붙들린 삶, 인간의 시작은 누구나 같지. 그러나 종말은 알 수가 없어"라고 말한다. 여기에 개인의 정체성이 자리잡을 공간은 없다. 개인의 역할도 있을 수가 없다. 오직 그러니까 끝으로 "말라 가는 가로수를 살리자"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곳에 고정된 채 침묵하는 나무를 말하게 된다. 

안창원 | 호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연극평론가